

300자로 hip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멸종위기종 백두산 호랑이 보호 강화 시급

북한과 접경한 중국 지린성 백두산(중국 명칭 장바이산 長白山) 국가자연보호구역에서 야생 백두산 호랑이가 30년만에 발견 됐다고 중국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



북한 접경 지역인 중국 지린성 백두산 국가자연보호구역에서 야생 백두산 호랑이가 30년만에 발견됐다. 뉴스

리가 지난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연보호구 관리소 직원들은 백두산 서쪽 비탈의 관광도로 인근에서 야생 백두산 호랑이를 발견하고 휴대전화로 촬영에 성공했다.

시베리아 호랑이로 불리는 백두산 호랑이의 중국명은 동베이후(東北虎)이며 중국 동북지역과 백두산 등에 서식하고 있다.

앞서 이들 직원들은 발견 7일 전 해당 지역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야생 백두산 호랑이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을 발견했다.

이에 모니터링 카메라 9대를 설치해 감시에 들어갔고 호랑이 출몰에 주의하라는 경고 표지판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린성 임업·초원국은 이번 발견은 야생 백두산 호랑이의 서식지가 헤이룽장성과 지린성 일대에 2021년 10월 지정한 백두산 국가자연보호구역으로부터 서쪽으로 200km 이상 활동 반경이 확장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인근 민가까지 백두산 호랑이가 내려와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동북지방 헤이룽장성 농가에 농민을 물고 달아나는 상황이 지난달 18일 발생했다.

2021년 기준 50마리였던 백두산 호랑이가 지난해 기준 70마리로 늘어나면서 인근 농가까지 출몰하고 있는 것.

중국은 백두산 호랑이를 멸종위기종으로 보존키 위해 지난 2021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초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살려 먹이시설 구조의 변화 등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기 위한 생태계 점검이 시급하다.

#SnackNews #백두산호랑이 #조선용기자 #박지은편집디자인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회의, 줄퇴장·표결 불참

지난 7일 오후 6시20분께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재적 195명의 투표로 의결정족수 200명에 미치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국회는 탄핵안 투표에 앞서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 후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여당에서는 탄핵안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만이 자리를 지켰으며 김예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로 투표를 진행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108명 의원의 이름을 호명하며 본회의장 복귀를 요청했다.



'한국의 장 담그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선정

발효 콩으로 다양한 장을 만드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 됐다. 이로써 한국은 인류무형유산 23건을 갖게 됐다. 최근 피라미드 아수시온에서 개최된 제19차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최종 결정했다. 유네스코는 "'장 담그기'라는 공동의 행위가 관련 공동체의 평화와 소속감을 조성한다"며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등재 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첫 번째 한국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11년)이다.



"전속계약 유희" 어도어 뉴진스에 소송

지난 5일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당사는 지난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하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했다"며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해지를 통보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없이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전두환 씨 1979년 12·12사태 계엄령 1980년 5·17 계엄령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로 역대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계엄령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17 번째다. 앞서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은 △1979년 12·12사태, 1980년 5.17일 계엄을 선포한 전두환 △1961년 5·16군사정변, 1964년 한일협정 반대 6·3항쟁, 1972년 대통령 간선제 위한 10월유신, 1979년 부마항쟁 대응 계엄을 선포한 박정희 △1940년 10월 여순사건으로 헌정사 첫 계엄, 1940년 11월 제주4·3 사건 진압 계엄, 1950년~1951년 6.25 전쟁 첫 전국 단위 계엄 등을 선포한 이승만이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